**가나모리 가문 주택**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을 직접 관리 하에 둔 도쿠가와 막부는 현지의 행정관인 은광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에게 광산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지까지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는 150개 정도의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마을의 주민들이 부교쇼(부교가 집무하는 관청)에서 공적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오모리 마을까지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1700년대 중반에는 마을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 오모리에 머물 때 그룹마다 정해진 숙소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숙소를 고야도라고 하는데 고야도는 사회의 일부로서 존재했습니다. 오모리에서는 유력한 상인 가문이 고야도를 운영하며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나온 법령 등을 각 마을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 6개의 고야도 중 하나인 가나모리 가문 주택은 185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넓은 2층이 특징인 이 건물에는 수십 명의 손님이 숙박할 수 있었고 작은 다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양조장이나 부교쇼에 돈을 빌리기 위해 오모리로 찾아온 사람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만큼 주택에는 넓은 공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가나모리 가문 주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